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19.08.17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발행인 :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02 시론

건축구조물과 안전

03 종합

사랑에서 _ 건축과 공공성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장성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효용 높아

06-07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제 발전을 위해 4개 시·도와 MOU 체결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산업안전보건'의 날' 참석해 격려
광주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 서구 치평동 클럽붕괴사고 자문 나서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주시, '공공건축 3차 포럼' 개최해
전주시, 전주역사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 초청해 정책 투어 실시해
전주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본격화하여 주거지 재생 나선다

10 설계경기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11 인터뷰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12 광고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창!!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신간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열람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구조물과 안전



고성석 논설위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건축학부 교수
ssgo@chonnam.ac.kr

- 1986.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학사
- 1988.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 석사
- 1993. 서울대학교 건축학부 대학원 박사
- 2003. 8. ~ 현재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2018. 8. ~ 현재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장
- 한국건설관리학회 호남지회장 역임, 대한건축학회 종신회원, 한국안전학회 종신회원, 대한건축학회 학술상 수상 (2019년 4월) 등

건설의 목적은 자연이 갖는 위대한 자원과 에너지를 인류에게 실용과 편익을 제공하고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데 있다.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의 보전을 위한 안전도 인간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건설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가장 근원적인 과학기술의 하나이다.

건설인의 건축주 및 사용자에 대한 안전책임은 서기 2,000여 년 전의 함무라비법전부터 확고히 선언되어왔다. 즉, 건축자가 사용자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죽음을 면할 수 없었다. 건설에 종사하는 기술자로서 재해를 극복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건설 이전의 책무로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강화된 관련 기준을 넘어야 하는 건설기술자 자신의 역량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건축물이란 단순히 건축 재료를 다양한 구법으로 구현한 물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공간이다. 따라서 건설 관련 법에서는 건축안전(구조·기능·생활환경·화재·피난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사람들의 요구나 기술의 발달로 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능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각기 계획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중복 관리되어 비효율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다. 예기치 못한 문제의 발생에 따른 하중증가나 자연환경변화 등에도 사용공간의 안전은 건축인들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뇌리에 연상되는 건설구조물의 사고를 살펴보면 1970년 4월의 와우아파트 붕괴 사고(33명 사망, 39명 중경상)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에서 최근 발생한 복층형 클럽의 붕괴사고로 27명 사상자(2명 사망, 부상 25명)와 1994년 10월 21일의 성수대교 붕괴사고(상부 트러스 48m가 붕괴하여 32명이 사망) 및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502명의 사망)이다.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사고에 따라 다른 특성이 있는 듯하다. 건축법상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경우도 있으며, 원칙을 무시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무리하게 구조물을 축조한 경우가 있었으며, 사용에 따른 정기적인 점검 등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사용단계에서 불법적으로 건설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하여 건설 관련인들이 간과하거나 관찮게 하는 단일주의에 의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安全의 동양적 의미는 宀 + 女로서 여자가 집에 있다는 정서적인 안정과 八 + 王으로 나라의 위계질서를 상징하는 왕이 궁궐에 앉아 위엄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의 의미는 SAFETY에 나타난 단어의 앞글자를 토대로 S(Supervise:관리·감독, 관찰) A(Attitude:태도기술) F(Fact:현상 파악) E(Evaluation:평가분석 및 대책 수립) T(Training:훈련) Y(You are the owner:주인의식)로서 6개소를 통해 사고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에 대해 동양은 수동적이라면 서양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해석의 차이가 안전확보를 위한 현상에 대한 대처 방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건설 기술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서양의 6개소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확보를 위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건설의 단계를 설계 - 시공 - 사용단계로 구분하여 보면 각 단계의 주체는 건축사 - 건설사 - 사용자로 나뉠 수 있는바, 각 주체들의 책임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경제적인 주종 관계 및 경제성이라는 논리로 의도한 바와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비밀비재한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다.

문제가 발생되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비용이 초기에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다. 따라서, 건설관련인들의 직업인으로서 출발할 때의 初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으면 한다.

건설의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관우가 조조에게 붙잡혀 있다가 유비에게 돌아갈 때, 겹겹이 쌓인 단계를 돌파하고 갔다는 뜻의 오관참육장(五關斬六將)의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건축인들이 건축구조물의 완성 및 안전에 대한 보증을 하였으면 좋겠다.

건축물 사용자는 건축사의 의도와 건설사의 제작에 따라 공간을 이용하는바, 건설관련인들의 의도적인 불법이나 무관심에 의한 문제로 2018년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상회하고 OECD 국가로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부심이 가려져서는 안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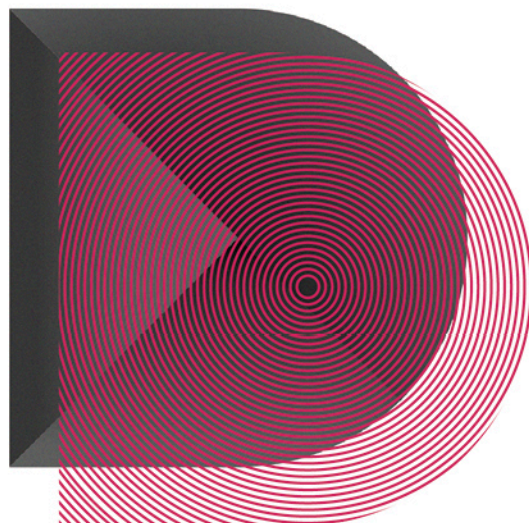
같지만 다른 캐드, 아키디자인 무료제품출시

일반캐드, 리습, 3rd Party 그리고 건축전용기능까지

지금 바로 www.midasCAD.com에서 무료로 제품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1899-9260



작업효율 3배 향상

- 지겨운 라인편집 작업 → Direct Draw !
- 찾은 면적산정/도면수정 → Auto Revision !
- 단순반복 출력, PDF변환 → 1 Click !

쓰던 방식 그대로

기본 2D캐드 기능 지원
리습, 3rd Party 기능 기본탑재

사랑에서 _ 신일곱 번째

건축과 공공성

공공(公共), public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띠려 있거나 관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성(公共性)의 개념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로 정의되고 있다. 사회 구성과 관계되는 공공성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성에는 공익과 공유의 사고가 전제되어야 한다. 밀도가 낮고 공동 규범이 필요치 않은 곳에서는 공공의 개념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될 수 있으나 사람과 사회, 자본과 경제, 개발과 환경, 나라와 나라 등 모든 분야에서 밀도가 높아지고 상호작용이 발생하면 시스템 메커니즘을 유지하기 위해 규약이라는 질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 속에서 공익과 공존을 위해 공공의 개념은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현재 국제 무역 관계에서 중요하게 보이고 있는 규약의 질서는 서로가 공존의 원칙하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호작용을 하여야 하나 한 편에서 일방적인 이익을 위해 질서를 무너트리려는 시도는 결국 공존의 메커니즘에서 이탈하여 주변국과 세계의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피해는 다시 순환하여 발생의 원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밀도가 높아 질수록 경제 논리가 인력에 의존한 농경사회에서 채집 생산한 농산물을 사고파는 일방향적인 단편적 자본 흐름에서 벗어나 세분화되고 분업화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양방향 순환 흐름 등 복잡한 시스템으로 바뀌어 버렸다.

사람이 영위하는 도시는 마을, 소도시, 대도시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시스템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도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그 경쟁력은 도시 자생력과 함께 세대를 넘어 지속될 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할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도시 경쟁력을 왜 건축에서 찾으려 할까?

자본의 유입은 고용을 창출하게 하고 소득은 의식주를 넘어 문화를 소비하게 되며 수요에 따른 지속적 문화 콘텐츠의 공급은 창의적 생산을 요구하며 수준 높은 삶의 질과 연계된다. 세상의 아름다운 그 어떤 도시도 자연을 배제하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자연을 넘어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이 거주하는 도시의 건축은 소소한 삶의 이야기부터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담을 수 있는 세우고 쌓아 만든 공간이다. 이 건축은 사람을 감동시키며 도시를 변화시킨다. 좋은 공간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건강한 사회 메커니즘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 건축은 사유의 대상인가? 공유의 대상인가? 건축은 사회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과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최소한의 법률적 규제 내에서 사유 되는 것을 넘어 능동적 공공의 대상이어야 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공공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이천십구년 팔월 육일, 마루로 육십칠
 자문위원_정명환 건축사(a2700@hanmail.net)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건축 건축 관계 법령 일부 개정·시행 알림

법령·규칙명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030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주요내용
	2019. 0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로티 형식 건축물의 감리중간보고서 제출대상 확대(제19조) (현행) 규정 없음 (개정) 공사감리자는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
	2019. 08.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완화(제34조) (현행)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함. (개정) 직통계단까지의 최소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으로부터 측정하도록 함. 방화구획의 설치 예외 규정 추가 신설(제46조) (현행) 규정 없음 (개정)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방화구획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게 함.
	2019. 1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 (현행) 학교(초등학교),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은 제외) (개정) 학교·학원, 위락시설 외벽 방화 마감재료 대상 확대(제61조) - (현행) 6층 이상 또는 높이 22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 - (현행) 규정 없음 (개정)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현행)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의 용도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또는 높이와 관계없이 방화 마감재료로 하도록 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작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림

지워버리고 싶은 땅(JAPAN)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 초대편집인: 박홍근
- 편집인: 강동영
-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 전담기자: 광승국
-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해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 간별: 월간
- 등록일자: 2010-01-25
-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 이주경 건축사 (주)아이에스피 건축사사무소 500,000원
- (주)아이디스아이티 300,000원
- 이본석 법률사무소 10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필/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매달 25일
 문의: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경운대학교 플라잉센터(영암기숙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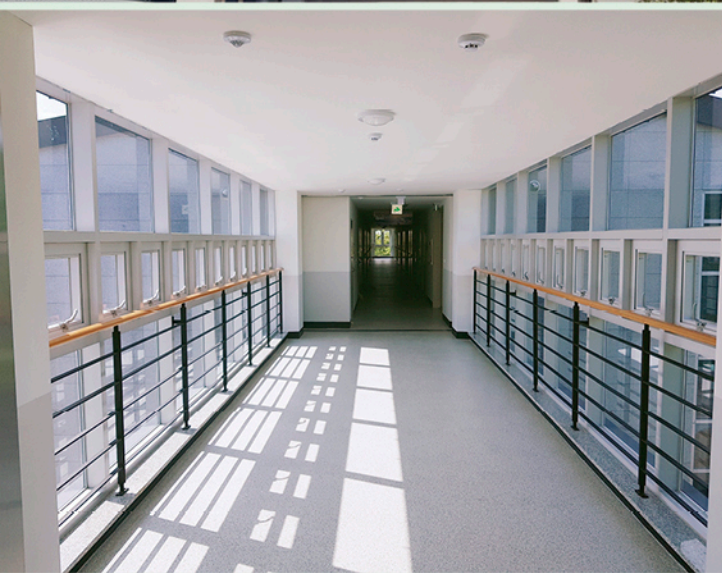
정순흥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루21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42 / Tel. 061-471-5653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259번지 / 대지면적 : 2,770.90㎡ / 건축면적 : 985.42㎡ / 연면적 : 2,860.38㎡ / 건폐율 : 35.56% / 용적률 : 103.23% / 규모 : 지상 3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문직업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최적의 환경에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플라잉센터(영암 기숙사) 설계를 진행하였다.
1층에는 사무공간, 교육공간, 편의시설을, 2·3층에는 비행교육원 교육생과 교직원들이 거주하는 객실로 구성하여 층간 용도를 분리하여 설계 반영하였다.
학교 측의 요청으로 외관은 평면 기능을 따라 단순하게 디자인하여 주요 외부마감을 화강석버너 구이와 AI징크로 설계하였다.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KIFA
한국건축산업대전 2019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
KIFA

2019. 11. 27(수) ~ 30(토)
COEX 1층 B Hall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전문전시회

건축사, 변화의 중심에서다
변화하는 건축
진화하는 도시

주 최 : 대한건축사협회
주 관 : 대한건축사협회, 코엑스
전시품목 : 우수건축자재, 건설장비, 조정, 신재생에너지, IT, 고효율 에너지 절약기기, 관련업체 등
동시행사 :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한국건축문화대상, 녹색건축한마당,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 관련 세미나, 건축자재추천제, 서울국제건축영화제, 한국건축산업대전대상 시상 등

건축자재 추천제

건축사 및 건축전문가, 일반인 등에게 우수 건축자재에 대한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건축자재추천제'를 시행합니다.
대상 : KS 등 국내·외 관련법령에 의해 인증된 건축자재 중 추천신청 제품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17 건축사회관 9층
T 02-3415-6866, 6867, 6876 F 02-3415-6899 E kaff2019@naver.com

2019 대한민국건축사대회

전남건축사회,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지난 7월 26일 전남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에서... 건축허가기간 초과 문제 논의 등



전남건축사회(회장 조연준)는 지난 7월 26일 전남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법제위원회 및 정책·홍보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조연준 회장을 비롯해 장인영 법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정책·

홍보위원회 위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본 회의에서는 도내 각 지자체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약에 따른 허가처리기간 초과 문제에 대한 논의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모니터링 설명회 참석자 의견 발표 및 관련 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감리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련 내용, 최근 개정·시행 법령 내용 등이 보고됐다.

조연준 회장은 “앞으로도 회원들의 업무에 불편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지를 모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가’ 위촉

지난 7월 19일 건축사 비롯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8명 자문위원으로 위촉



순천시는 지난 7월 19일 시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의무 적용되는 공공건축물을 사회 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8명을 공공건축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외부 전문가 2명, 지역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페시브하우스,

인테리어, 공공건축, 지속가능 거주, 건축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우수한 민간 건축가를 공공건축 업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로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건축 선진국에서는 18세기부터 운영하고 있어 보편화된 제도이다.

위촉받은 공공건축가들은 주민 참여형 순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향동, 중앙동 일원의 선도사업의 4년간의 추진성과와 '17년 선정된 터미널 중심시가지형, 남초등학교 일반근린형 사업과 '19년 상반기 선정된 순천역 중심시가지형 등 3개 뉴딜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설명과 토론을 진행했다.

위촉 위원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공건축 기획,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이용의 편리성, 효율성과 도시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자문 활동을 하게 된다.

■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건축 자문단

순번	성명	소속	직위
1	정광민	건축사사무소 서로	건축사
2	조익선	건축사사무소 선진	
3	정종민	건축사사무소 명인	
4	정재성	건축사사무소 프로세스	
5	양연경	위드 건축사사무소	
6	박병열	건축사사무소 시인공간	
7	김동인	OMA 건축사사무소	
8	오세규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장성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호응 높아

전문 건축사가 직접 상담하는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에도 만족도 높아



장성군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군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각종 건축민원에 대한 결정 이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건축허가 사항을 예고 받은 해당 지역민들이 건축으로 인한 생활 불편과 위험·미관 저해 요인들을 미리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은 건축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방지대책 수립에 반영되고, 나아가서는 다양한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데 근거가 되기도 한다.

다만, 군은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현실적으로 시행

이 어려운 비합리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반영·수렴 절차에서 배제하고 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으로 인해 군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이 장성군 안팎의 주된 목소리다. 또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군청 민원실 내에서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 건축사들로부터 토지구매와 설계, 준공, 건축물 유지관리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민원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건축민원 처리와 다양한 건축행정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성 필암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난 7월 초에...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서원’ 등재 최종 결정



전라남도도는 지난 7월 초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 ‘장성 필암서원’을 포함한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정부간위원회에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산하 자문기구인 이코모스

(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가 “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관습 형태로 지속되는 한국의 성리학 관련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개념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는 현지 실사 보고서를 근거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갖췄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의 서원’은 조선시대 사학 교육의 전형이며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특유의 공간 유형과 건축 양식을 보유하고 있다. 제향 의례 강학 등 서원 본연의 기능을 오늘날까지 유지한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이다. 또한 지성의 집회소로서 서적과 판본 유통확산의 중심 역할을 했다. 특히 제향 의식은 5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동아시아 서원 유산 중 가장 완벽한 형태로 재현하고 있다.

전체 등재 대상은 전국 6개 시도 9개 서원(전남 필암, 전북 무성, 대구 도동, 경북 소수도산옥산병산, 경남 남계, 충남 돈암)이다.

장성 필암서원은 사적 제242호로 1590년 건립됐으며, 조선시대 평지에 세워진 서원 건축의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동국 18현인 도학자 김인후(1510~1560)를 제향하고 중앙과 연결된 정치 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 문서와 전적, 목판(보물 제587호) 등 조선시대 서원 운영과 선비 교육의 중요한 기록 자료도 전해오고 있다.

전라남도도는 이번 세계유산 등재 기념으로 강연회와 전시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차별화된 활용사업을 적극 발굴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광양시,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비 지원

가구당 최대 336만 원 지원, 사회취약 계층 최대 5백만 원의 지붕개량비 지원한다

광양시가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 신청률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과 사회취약계층 지붕개량도 지원하고 있다.

주택 외에 독립된 축사, 창고, 점포, 공장 등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 처리비 지원과 사회취약 계층(기초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사업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광양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취약 계층에 가구당 336만 원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와 최대 5백만 원의 지붕개량비가 지원된다.

특히 주택 외 슬레이트 지붕 해체 및 처리 지원사업은 전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슬레이트 면적별로 168㎡ 이하 최대 336만 원, 168㎡ 초과~500㎡ 이하 500만 원, 500㎡ 초과~1,000㎡ 이하 최대 1,000만 원, 1,000㎡ 초과 최대 1,5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시는 7월 30일 기준 신청 가구 수가 37동으로 올해 지원 목표량 254동에 비해 많은 여유가 있는 편이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선정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슬레이트 면적 등 현장 조사 후 일정에 따라 철거공사를 시행한다.

전남 회원동정

• 변경(소재지)

- 김태주 건축사 / 대신 건축사사무소 /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로 19, 4층



U.O.C
고경호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도시건축
광주 서구 금리로73번길 17, 선릉더뷰스 상가동 1층 102호
Tel. 062-885-540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391-4번지 외 4필지 / 대지면적 : 628.6㎡ / 건축면적 : 373.73㎡ / 연면적 : 1,024.01㎡ / 건폐율 : 59.45%
용적률 : 162.90%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3층,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주요 마감 : 스타코, 징크페널 외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제 발전을 위해 4개 시·도와 업무협약체결

지난 7월 13일 강원도 알펜시아에서... 문화제 기간 중 협약 시·도 우수작품 상호 전시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7월 13일 강원도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강원·경기·경남·제주건축사회와 건축문화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강원도건축사회

김창기 회장, 경기도건축사회 왕한성 회장, 경상남도건축사회 김재석 회장,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 김상언 회장이 자리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광주를 포함 5개 시·도 건축사회는 건축문화제 관계자의 인적 교류를 활발히 하는 것과 함께 건축문화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다양하고 풍성한 건축문화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 각 시·도 건축사회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5개 지역 우수 건축작품(지역 건축상 수상작)의 상호 전시가 가능하게 됐다.

강현구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당 시·도의 우수건축작품들을 상호 전시하며 건축사들의 창작 의욕 고취를 시킴과 동시에 각 지역건축문화와 나아가 대한민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밑거름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 '산업안전보건의 날' 참석해 격려

지난 7월 15일 DJ센터에서... 산업재해예방 위한 노력 동참해 줄 것 당부



광주건축사회 강현구 회장은 지난 7월 15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광주권역 산업안전보건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산업재해 예방 위한 노력에 모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단 광주지역본부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개최한 이번 행사는 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산재 사고사망자 절반 줄이기의 현장 작동성 강화와 지역 산업안전보건 유공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현구 회장을 비롯한 광주시 정종제 부시장,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강현철 청장, 안전보건공단 안병준 광주지역본부장, 광주경영자총협회 김봉길 부회장 등 300여 명의 안전보건 관계자가 참석해 지역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광주건축사회는 건축, 건설 현장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안전에 대한 교육 등 계도

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 서구 치평동 클럽붕괴사고 자문 나서

광주서부경찰서 의뢰에 따라 지난 8월 2일 현장 방문하여 사고 구조물에 대한 실사



지난 7월 8일 발족한 광주건축사회 재난안전지원단이 광주 치평동 클럽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자문 활동에 나섰다.

지난 7월 27일 서구 치평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무단증축 및 불법 구조물 설치로 인해 구조물 붕괴사고(사망 2명, 부상 25명)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서부경찰서에서는 광주건축사회로 자문단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강현구 회장은 재난안전지원단 위원의 정태호 건축사를 비롯해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박형갑 건축사를 현장에 파견해 사고 구조물과 불법 증축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손상된 건축물의 안전을 평가하고 신속한 복구 및 인명 구조 활동을 실시하며, 평상시에는 이번과 같은 건축물 관련 사고 발생 시 현장 파견 및 자문역할을 하게 된다.

강현구 회장은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은 건축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 발생 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신속하게 내릴 수 있는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위한 공공건축가 24명 위촉

지난 7월 25일 광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건축 비롯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제1기 공공건축가 2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공공건축가는 광주시 개별 공공사업에 대해 기획에서부터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당초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설계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는 총괄·조정 자문을 한다.

특히 제1기 광주 공공건축가는 지난 4월 위촉된 함인선 총괄건축가와 협력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건축기본계획과 같은 도시건축정책도 적극적으로 총괄 조정한다. 시는 이를 통해 아파트 숲, 회색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가장 광주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광주 공공건축가는 건축 분야를 비롯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



복합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용봉동은 주거공간과 상업공간, 그리고 복합공간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 대지의 큰 장점은 상업공간의 거리를 뒤로하고 대지 앞에는 소규모 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각 동 상층부의 주거공간은 공원의 나무숲을 바라볼 수 있고 시야가 열려있으며 저층부는 작업할 수 있는 소규모 사무실 공간과 필요시 임대 가능한 상업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의 축소와 분업화된 작업환경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흐름을 반영하여 대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소규모빌딩을 계획하였다. 저층부는 다양한 업종공간을 만들고 고층부는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만들어서 주거공간에서 발생하는 공사비용을 최소화하였다.

경 등 도시건축과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네덜란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도시건축 분야에 앞서 있는 외국대학 출신 건축가들과 광주지역에서 실무 경험이 뛰어난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 제1기 광주광역시 공공건축가 위촉 명단(위촉기간 : 2019.7.25. ~ 2021.7.24.)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등)
1	강철욱	건축사사무소 예코 대표	13	위진복	유아이에이건축 대표
2	강필서	(주)공간동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14	유창균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3	강형주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소장	15	유형두	건축사사무소 가원 대표
4	김경원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6	윤근주	일구공도사건축 건축사사무소 대표
5	김용준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7	윤대환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6	김준택	전남대학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18	이민석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7	김향집	광주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9	이순석	(주)건축사사무소 더블유 대표
8	노영자	건축사사무소 LIM 대표	20	임승완	전남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9	박현진	(주)온디자인 건축사사무소 대표	21	정명환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10	신영은	건축사사무소 사람 대표	22	정영석	(주)디자인그룹 금성건축사사무소 상무
11	신태양	호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前)	23	주명철	동신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2	양병범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대표	24	최재영	풍경플러스 대표

수 공고문을 확정하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모는 이전에 비해 제출서류 간소화를 시켜 건축사들의 많은 작품접수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존에 작품 패널과 설계 설명서, 작품 사진을 제출받았던 접수 방법에서 벗어나 작품 패널만을 제출하기로 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http://gjkir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응모대상

-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최근 5년 이내(공고일 기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이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다만, 광주시에서 이미 시상 받은 건축물은 제외함.
-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 신고를 한 자의 작품에 한함.

■ 시상 구분 및 부상

- 시 상 : 주 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비주거(리모델링 포함) : 금상(1점), 은상(1점), 동상(1점)
- 부 상 : 설계자 ⇒ 상패 및 상금, 시공자 ⇒ 상패, 건축주 ⇒ 건축물에 동판 부착
 ■ 금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1,000,000원]
 ■ 은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400,000원]
 ■ 동상-주거/비주거, 설계자 [각각 상금 100,000원]

■ 제출작품

- ① 이메일(GJKIRA@EMPAS.COM) 제출 : 작품 제출기한 내 소정 양식의 응모 신청서(붙임)와 패널 A0(841×1,189mm) 1매 파일을 전송하고,
 - ② 현장 제출 : 패널 A0(841×1,189mm) 1매를 작품제출 기한 내 제출장소로 접수
- 제출기간 : 2019. 9. 2.(월) ~ 9. 27.(금) 18:00
 ■ 제출장소 : 광주시 북구 무등로 255, 광주건축사회관 4층 광주건축사회(062-521-0025~6)

나무심는 건축인,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 공모

8월 31일까지 작품 접수... 광주 소재 공개공지, 담장가로, 옥상녹화, APT 공간 등



나무심는 건축인(대표 신정철 건축사)에서는 8월 31일까지 '2019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아름다운 문화도시공간 공모대상은 광주 지역 소재의 아름다운 도시문화 경관에 기여한 공개공지나 담장가로 및 씬지공원 벽면, 옥상녹화, APT 공간이다.

누구나 참가 가능하고 작품 접수기한 내 A3 규격 이내의 설명서와 장소 포함 5매 이내 사진을 나무심는 건축인 사무처(광주 서구 시청로96번길 12, 310호)로 제출하면 된다.

시각 부문과 공간 부문으로 나누어 각 3점 이내로 입상 작품을 선정하며, 입상된 작품의 건축주에게는 광주시장상이 전달되고 해당 작품에 기념 동패가 부착된다. 입상작품의 전시는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되는 제16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 및 문의 사항은 나무심는 건축인 사무처(T. 062-383-0925)로 연락하기 바란다.

광주건축사회,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공모 공고

건축상 운영위원회, 제출서류 간소화 통해 우수작품 대거 접수 기대

광주건축사회는 오는 8월 12일에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작품 공모를 실시한다. 제2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운영위원회(위원장 강필서 건축사)에서는 작품접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김병석 건축사 / 희석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독립로 399, 지하 1층
- **전입**
- 이현조 건축사 / (주)리가온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57, 4층
- **변경(상호)**
- 광송동 건축사 / 엘.드림 건축사사무소 → (주)엘드림 건축사사무소
- **변경(소재지)**
- 이창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마당 / 광주 동구 지산로57번길 5-4, 4층
- 오영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합동건축 /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124번길 77, 2층
- **부고**
- 최수일 건축사 / 백제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10일(수)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토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전주시, '공공건축 3차 포럼' 개최

지난 7월 24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공공건축 투명성 확보에 창의성 잡기 위한..



전주시는 지난 7월 24일 전주시 혁신센터에서 건축사를 비롯한 공공건축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반 시민, 공무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공공건축 3차 포럼'을 열고, 창의적인 공공건축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 및 공모제도의 공공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을 변화시키는 공공건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포럼은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3번째 열린 것으로, 전문가 강연과 외부발제, 토론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명지대 건축학과 박인석 교수의 '공공건축 설계발주정책의 쟁점 및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 이어, 충청남도 공공건축가에 위촉된 스페이스모 건축사사무소 이성영 건축사가 '공공건축 공공성 확보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자리에서 박인석 교수는 우리 사회의 열악한 공공건축 디자인 및 공모제도의 현실에 대해 진단하고, 설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모제도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성영 건축사는 공공건축 공모제도와 관리단계의 문제점과 관련 법제도 및 공모제도 운영사례 설명 등을 통해 공공건축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2부 순서로 군산대학교 건축해양건설융합부 박성신 교수를 좌장으로 전주시간건축사회 이태원 회장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여혜진 연구위원 등 공공건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전주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고, 공모제도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주시와 지역 건축사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전주시, 전주역사 설계공모 참여 건축사 초청해 정책 투어 실시

지난 8월 1일과 2일 양일간 전주의 역사와 문화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 소개



전주시는 8월 1일부터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주역사 국제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사 20여 명을 초청해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을 소개하는 정책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정책 투어는 전주역사 국제설

계공모에 참여한 건축사들이 전주시의 사업추진 현장과 한옥마을 등을 둘러봄으로써 전주시의 도시정책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전주역사 설계 시 전주시정 철학과 비전이 설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정책 투어에 참가한 국내외 유명 건축사들은 첫째 날, 전주시민놀이터에서 전주시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서노송예술촌과 서학동예술마을 등을 견학했다. 또 전주한옥마을 일대 주요 건축물인 경기전과 전동성당, 전라감영 복원 터 등을 둘러보며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했다.

둘째 날에는 전주역사 신축 설계 시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기 위해 전주역 앞 첫마중길을 방문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서 전주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현장을 둘러보았으며 또, 대한민국 문화재사업 대표 성공모델로 평가받는 팔복예술공장을 견학하고, 김승수 전주시장과의 티타임을 통해 전주역사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전주역 시설개량사업은 국비 300억 원과 철도시설공단 10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투입해 선상역사를 증축하고 주차시설 조성 및 교통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오는 202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사 국제설계공모에는 86개 업체가 참가를 등록한 상태로, 오는 9월 10일까지 작품 접수 기간을 거쳐 9월 말에는 새로운 전주역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빈집 정비 계획 수립 본격화하여 주거지 재생 나선다

현장조사 등을 거쳐 덕진구 828호, 완산구 1,220호 등 총 2,048호를 빈집으로 확정

전주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함께 이달 말부터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해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지난 7월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LX와 함께 최근 1년간 에너지 사용이 없어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을 추출한 뒤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덕진구 828호, 완산구 1,220호 등 총 2,048호를 빈집으로 확정했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7월 말까지 주택의 관리현황과 건물 안전상태 등을 거쳐 등급산정조사 및 소유자 면담 조사를 완료하고, 이후 민간참여와 빈집·도시재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빈집의 유형과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향후 빈집 정비계획 수립 시 주거지 재생과 연계해 구도심 주거지를 보존하고, 단순 철거형 정비방식이 아닌 주민주도의 정비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도심 속 빈집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 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빈집뱅크'를 운영함으로써 원도심 재생의 활력소가 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J HOUSE

김남중 건축사 / (주)리안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154
Tel. 063-274-3647



대지위치 :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312-1 외 2필지 / 대지면적 : 1,359.00㎡ / 건축면적 : 167.83㎡ / 연면적 : 144.68㎡
주용도 : 단독주택 / 규모 : 지상 2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 마감 :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

익산시, '도시 디자인', 지역 대학생과 함께 설계 나선다

'공공디자인' 사업 일환 지역대학생 참여 프로그램 운영, 30명 내외 선발

익산시는 지역 대학생들이 도시디자인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디자인 사업 과정에서 디자인 분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익산 디자인 위크(Iksan Design Week)'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지난 8월 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30명 내외로 대학생들을 선발했다고 한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10월까지 시에서 추진 중인 경관·공공디자인·도시재생사업 등의 분야에서 디자인 개발 및 설계에 시범적으로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디자인 개발 등에 직접 참여한다는 자긍심과 함께 실무경험을 통해 청년창업은 물론 취업 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지역건축사회, 취약계층 집수리 재능 기부 뒤늦게 알려져

지난 6월경 군산시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건축 무료상담도...



군산지역건축사회(회장 서일석 건축사)가 최근 군산시 건축직 공무원들과 함께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봉사단 집수리 재능기부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경 진행된 재능기부는 사회취약계층 중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신광모자 자립원' 2세대(화장실 2개소)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군산지역건축사회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건축사 회원들과 군산시 건축직 공무원들이 함께 봉사단을 구성해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직접 참여했다.

한편, 군산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월 26일 군산시와 재능기부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3월부터 매주 수요일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내 민원실에서 건축법률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임박, 적법화에 총력 나선다

7월 기준 82%(총 4,133농가 중 3,387농가) 추진 ... 9월 27일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

전라북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총 4,133농가 중 완료 또는 진행단계가 3,387농가(82%), 축량단계가 329농가(8%), 미 진행단계가 418농가(10%)라고 밝혔다.

추진율(완료 또는 진행단계)은 지난 3월 45.3%에서 5월 74.7%로 급상승했으나, 7월 현재 82%로 추진율의 상승 폭이 둔화됐다.

이는 축량 중이거나 미진행농가의 적법화를 위한 진행이 더디기 때문으로 분석되며, 현재 남아있는 축량 및 미진행 농가가 747농가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시군별로는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은 추진율이 90% 이상,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부안군은 추진율이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도는 현행법상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이 종료되면 지금까지 농가에 지원됐던 모든 혜택이 종료되며 미 적법화 축사에 대해 폐업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알렸다.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 직후, 이행강제금 경감 종료,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종료, 착유세척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 건폐율 적용 제외 종료, 국유지 매각 완화 적용 종료, 농신보 특례 보증 자금지원 종료 등 농가지원 혜택이 모두 종료되며, 적법화를 하지 않은 농가는 위반사항에 따라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도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며, 축산농가도 이행 기간 내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2019년 10월 25일 ~ 10월 30일... 전라북도청 일원



▶ 프로그램 : ① 전라북도 건축문화상(개막식, 시상식) ② 전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수상작, 한중일 국제건축작품전, 한옥기획전시, 전북개발공사 특별전, 건축사진작가 초대전, 교육시설 작품 전시) ③ 학술발표(학술대회, 사례발표) ④ 도민 참여 및 차세대 건축 꿈나무 육성(어린이 집 그리기, 건축 백일장, 건축 올림피아드, 과자로 집 만들기, 건축 및 진로 상담)

전북 회원동성

• 변경(소재지)

- 김유천 건축사 / 아이아트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중앙로 8, 401호
- 양창근 건축사 / 양창근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2길8

• 결혼

- 이두필 건축사 / 두산 건축사사무소 / 딸 결혼 - 08월 24일(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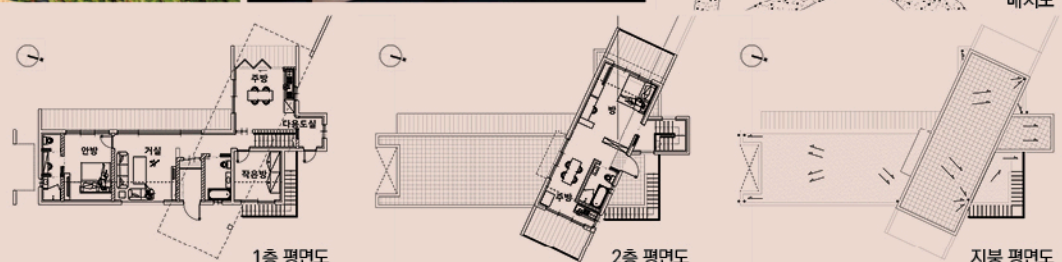
• 부고

- 이영교 건축사 / (유)조형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08일(월)
- 전옥영 건축사 / 기술사건축사사무소 미문건설기술연구원(주) / 모친상 - 07월 15일(월)
- 노동호 건축사 / 해오름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7월 19일(금)



장수 두산리 두산마을, 한적한 농촌에 위치한 'J HOUSE'는 화려함보다 가족의 일상이 반영될 수 있는 평범하고도 안락한 단독주택 공간을 구성하였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마당과 넓은 잔디밭을 배치하였다.

1층에는 안방과 거실, 작은 침실을 배치하여 생활공간으로, 2층은 넓은 방과 주방, 테라스를 배치하여 파티 등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계획하였다.



삼호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건축설계 공모

본 설계공모는 영암군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가 있는 수영장을 건립하기 위한 우수한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설계공모를 진행 함.

심사위원 : 김태희(목포대), 문동일, 오자영(영암군), 박명재(건축사), 윤대한(광주대), 조창근(조선대), 한승훈(전남대)

- 대지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양리 259-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67,239.00㎡
- 연 면 적 : 4,075.00㎡(±10% 이내)
- 지역지구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문화시설
- 용 도 : 운동시설 (수영장)
- 공 사 비 : 12,500백만원

당선작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우수작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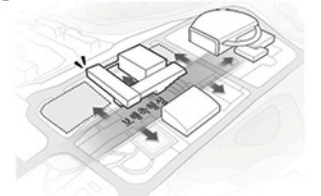
당선작

김기준 건축사 / (주)맥스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장정수 건축사 / (주)맥스유 종합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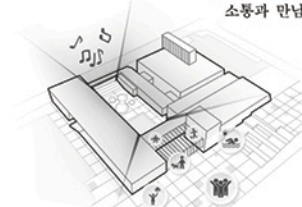
영암의 새로운 커뮤니티공간,

드림스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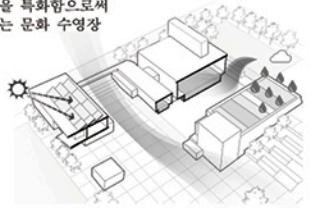
교류의 풍경

주변과의 연계를 고려한 단계계획으로 소통과 만남이 있는 열린 수영장



꿈을 키우다

체육·커뮤니티공간을 특화함으로써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문화 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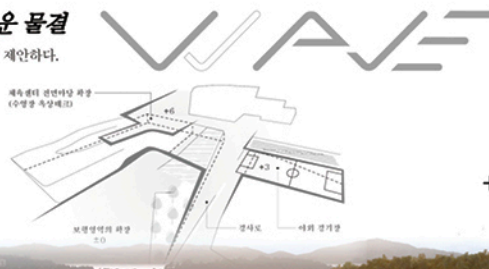


자연을 담다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부하를 줄인 친환경 수영장

[몰결] : 도시와 자연, 지역민들의 고유한 문화를 상징하게될 새로운 몰결

단절된 삼호문화 복지타운의 문화지형을 회복하고, 자연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일상의 즐거움을 제안하다.



우수작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 길종일, 오금열 건축사 / (주)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시민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능력, 그리고 공공조직의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과 도시경관! 그것이 바로 ‘광주다움’입니다”

(‘광주다움’의 여러 정의 중) _ 함인선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함인선 초대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사진 :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는 지난 4월 23일 함인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를 초대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학 학사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명지대 건축학과 겸임교수와 한양대 건축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 포스코 수석기술고문 등을 역임했으며, (주)건원건축과 (주)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를 지냈다. 또, ‘건축가 함인선, 사이를 찾아서’(2014년)와 ‘정의와 비용 그리고 도시와 건축’(2014년), ‘건물이 무너지는 21가지 이유’(2018년) 등 다수의 건축 관련 저서로 일반 대중들에게 친숙한 건축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음은 지난 7월 26일 광주시청 13층 총괄건축가 집무실에서 본지 편집위원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건축문화사랑 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전남·전북지역에 계시는 여러 건축사님들과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에 연고는 없습니다만, 건축회사 대표와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광주·전남지역의 건축사분들의 전문성이나 건축 전공 학생들의 역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잠재력이나 능력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정도의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광주 지역 건축인들에게 거는 기대도 큼니다.

총괄건축가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총괄건축가의 이름은 특수한 이름이고 일반적인 용어는 민간전문가입니다. 민간전문가는 2007년 12월에 제정된 건축기본법상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공공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서울시에서 먼저 도입이 되었는데 오세훈 前 서울시장님이 있을 때 시작됐고, 다음 박원순 現 서울시장님이 총괄건축가라는 제도로 하여 승효상 건축사를 제1대 총괄건축가로 임명하면서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것입니다. 간단하게 개방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민간의 전문인력을 공적조직에서 활용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면 부단체장 즉, 시청 같은 경우 부시장급의 권한을 주어서 여러 가지 공공 건축과 공간, 환경 사업 등에 대한 부처별 일들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각 개별프로젝트에 공공건축가를 파견해서 그 공공건축가가 총괄건축가와 협의해서 그 일을 조정하도록 하는 일도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공공의 건축물들이 행정적, 기능적, 디자인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5년째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용하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전부 PQ로 내놓은 작은 건축물들은 현상설계를 통해서 하거나, 능력 있는 젊은 건축가들한테 지명경쟁을 시키거나 해서 굉장히 좋은 건축물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광주도 그 선례가 있으니 잘 정착하면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공공건축가 위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주요 업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총괄건축가는 광주 전역에 대한 건축과 도시의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안에 구체적인 장소나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 총괄건축가와 협업해서 자문하거나 수행하는 일을 공공건축가가 하게 됩니다. 공공건축가들이 해야 할 부분은 다양합니다. 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문이 첫 번째 일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 프로세스에 처음부터 개입해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 발주, 설계의도 구현, 실현 과정까지 자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규모 공공건축물 현상설계경기에 대한 심사위원 역할입니다. 서울에서는 신진공공건축가라고 해서 45세 이하 건축가를 선발하여 1억 원 이하의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지명 현상설계경기를 시킵니다. 이에 대한 자문,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도시적인 차원에서 일을 한다면 마을 건축가 이런 부분들도 공공건축가의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주광역시의 건축과 도시발전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괄·공공건축가에 대한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용섭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광주다움’입니다. 사실 도시마다 시정철학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막연하고 상투적인 표현이었는데 ‘광주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다운 건축이 무엇이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 건축계 여러분들과 함께 공공건축가들과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결론은 나오지 않고 저 스스로가 결론을 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광주라고 하면 떠오르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느 도시에도 없는데 광주만의 도시경관이 있고, 광주만의 건축이 있으면 그게 ‘광주다움’인 것입니다. 바로 뛰어난 것입니다. 서울도 못 하고 부산도 못 하고, 대구도 못 하는데, 광주에서는 시민적 합의와 전문가들의 능력, 그리고 공공조직의 열린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건축물들과 도시경관! 그것이 바로 ‘광주다움’인 것입니다. 결국 좋은 도시나 좋은 건축이 갖는 보편적인 덕목이 있잖습니까. ‘광주다움’ 것들에 대한 요소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가장 좋은 도시와 좋은 공간환경과 좋은 건축물들이 광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게 바로 ‘광주다움’인 것입니다. 사실 서울보다는 광주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곳이 인구 150만 명의 도시입니다. 헬싱키,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보스턴 등등 인구 150만 명의 도시 정체성은 금방 만들어지고 전반적인 수준을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보다 잠재력이 있다고 보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추진역량을 가지고 운영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총괄건축가직에서 벗어나 건축인 개인으로서 질문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 현재 가장 필요한 점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 관련한 종사자분들이 광주·전남지역 건축사 약 600여 명, 거기에 기술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과 학생들까지 하면 대략 5,000여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곳보다는 무엇인가를 거기에 적절한 인원입니다. 서로 같은 측면에서 의견을 통일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중앙에서 3단계 통합(사회, 기획, 새건축)을 위해 10년간 힘을 보냈습니다. 건축이라는 한 가지 종목에서 여러 단체가 있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에 단체장님들이나 협회장님들을 자주 만나 조언도 듣고 의견교환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힘을 모을 때는 적극 앞장설 것입니다. 관에서 하는 제도적, 행정적 부분들에 대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제가 좋은 위치에 있으니 저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계 모두가 잘 협동하고 단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시청에서 진행된 총괄건축가 위촉장 수여식



지난 7월 26일 시청 13층 총괄건축가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원호사 이주단지’를 광주 문화생태마을로 조성한다.(지난 5월 1일 현장 방문)

대학연구진과 개발연구로 탄생한 “EQ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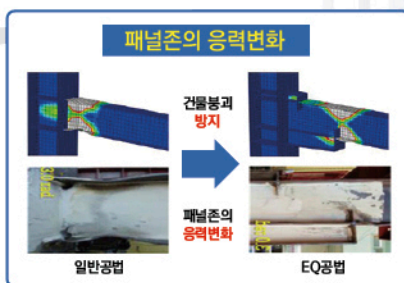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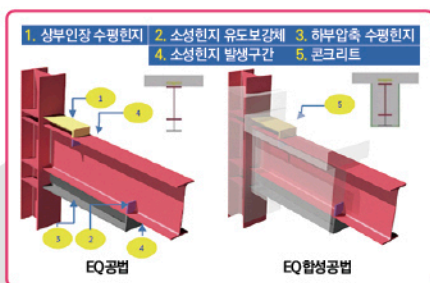


건축물의 내부기둥이 없어 최고의 공간활용

V.E 검토 무료

“철골예산 원가절감 40~15%”

- ▶ 내부기둥이 없는 ‘철골 접합부 내진보강공법’
- ▶ 철골 구조검토 및 구조설계
- ▶ 무료 경제성(V.E) 구조검토



- ▶ 신기술 ‘내진강접합시공공법(EQ공법)’ 개발 주목
- ▶ H형강 원자재 활용 접합부 보강으로 안정성 극대화
- ▶ 횡적 구조설계 강재량 감소, 공간 ↑, 공사비 40% ↓
- ▶ ‘단부보강형철골구조물’ 특허 획득 내진성능 강화
- ▶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안전성·경제성 극대화

(주)경서 EQ구조엔지니어링(주)

서울 분사무소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20길 6, 포스시티 403호 T. 02) 2060-4717
 광주 분사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봉로 209-2 T. 062) 956-0131
 본사 :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로30번길 14 T. 061) 281-2995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55 T. 061) 322-7317 F. 061) 322-7316

문의 | 1855-2240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 검색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본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탄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DK | 주대 광 판넬 | 주디케이보드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광주분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618호
 T. 062)385-5053 F. 062)385-5054

본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T. 02)558-8123 F. 02)558-8124
 부산분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1405호 T. 051)745-9191 F. 051)745-9195

“인간·환경·기술이 하나되는 친환경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연구 업무

- 스마트건축·도시연구
- 건강건축연구(WELL Building)
- 유니버설디자인·고령자주거연구
- 제로에너지 건축연구(ZEB)
- 건축환경 및 성능연구
- 건물에너지진단 전문기관
-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

www.kriea.re.kr